이재명 "정부, 한상혁 부당 면직은 공영방송 장악 선언"

SNS에 메시지 "보수정권 언론장악 시도 차단할 정책적 대안 마련" 민주 최고위…北 우주발사체 발사 규탄・서울 경계경보 오발령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부당하고 위법적인 면직은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이 엉망이고 국민의 삶이 위기인 데 '땡윤 뉴스'로 제 아무리 분칠한 들 그 본질이 가 려지겠느냐"며 "잠시 언론은 장악할 순 있어도 민심

을 장악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부 독재정권의 보도지침부터 이명 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 트'까지,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며 "윤석 열 정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용납 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 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 의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 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

이 대표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 게 바로잡는 등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서울 지역 경계경보 오발령 과 관련,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위기 증폭 시 스템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 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 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이미 통보한 발사 사 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올해 4월까지 대중(對中) 수출 이 지난해보다 무려 27.7%나 감소했고 지난 1분기 대중 무역 적자가 이미 80억 달러에 이르렀다"라며 "어제 중국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현장의

위기감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대로라면 중국 시장 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

그러면서 "정부의 편향적인 이념 외교가 우리 경 제의 발등을 찍고 있다. 정부가 '코리아 리스크' 진 앙 그 자체"라며 "진영 대립에 앞장서면서 대한민국 을 '동북아의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자충수를 더 이 상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유를 침해 하는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대응하 고 대중 특사 파견 또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의장 "선거제 개편, 이번달 합의안 만들자"

국회 개원 기념식…"쇠 뜨거울 때 두드려야"

관련해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울 결실의 순간"이 라며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 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 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5주 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리 국회는 선거제 개 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31일 선거제도 개편과 김 의장은 "20년 만에 역사적인 전원위원회를 열 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며 "국민대표 '500인 회의'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 을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좋은 쟁기를 만 들 수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 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 한 정치개혁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외교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제 의회 외교도 국가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 외교 활동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한 분, 한 분이 외교 전시라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75년 전 국민의 환호 속에 개원한 국 회가 산적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김남국 거취 놓고 '갑론을박'

친명계 "제명은 논란 여지"…비명계 "사퇴 고려해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 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31일 탈당 이후 17 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근한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 거래 에 대해) 수상한 거래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거취와 징계를 둘러싸고는 민주당 안팎 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 위)가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김 의원 본인이 선제 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 라 나오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전날 CBS 라 디오에 출연해 "본인이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 게 판단해야 된다"며 "자진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 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에 나와 "본인이 이렇게 된 마당에 우 선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면, 징계 전에"라며 "어차 피 다음 총선에 출마 못 할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

운데 징계 수위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위철환 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9일 MBC 라 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 김 의원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근본적 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 된다고 본다"고 답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도 윤리(특)위 중징 계를 감수해야 될 것 같다"면서 "국회 출석정지 30 일 정도 선에서 윤리(특)위 모든 의원들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명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갑석·서삼석·김경만 의원 '국회 의정대상'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수 법률안 발의 공로를 인 정받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잇따라 수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의원은 지난 31 일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3년 연속 '대 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 회 의정대상이 신설된 2021년부터 3년 연속 수상 한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송갑석 의원을 포함해 단 2명이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우수 입법의원)' 분 야 수상자로 선정된 송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제 정법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 률안(이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이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도 우수 법률안으로 의정대상을 받았다. 입법활동 부문 우수 입법의원

으로 선정된 서 의원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인구감소 대응 법안 중 21대 국회 최 초로 2020년 6월 1일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 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김경만(비례) 의원도 이날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 력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고 있는 수탁기업 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 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m²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m²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447㎡ (740평)

- -경관 좋음. 별장형 빌라 등 가능. 숙박시설가능 -매도 7억7천만원
-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땀 4,650㎡ (1,406평)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컨테이너 있고 공시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최고고화질 (LED플칼리) 최고화질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3. 높은 광고효과

-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